

치 사

한해의 성취를 돌아보고 함께 나누겠다는 소중한 마음으로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에 참석하신 대덕 스님들과 정·관계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7회를 맞이한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영역이지만 사회적 공동선 실천을 함께한 모두가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나눔 실천’의 면면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따스한 법연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창립 20주년을 어엿하게 맞이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의미 있는 결실을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나눔’이라는 공통의 소임을 함께한 도반들이 모여 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뜻 깊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법의 뜻을 지혜와 자비로써 실천하는 많은 사회복지 지도자와 실천가 여러분, 그리고 무주상보시의 화현인 자원봉사의 노력과 헌신을 함께 치하하고 공덕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시대 우리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고도의 과학문명을 이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부격차로 인해 소외 계층의 고통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증진을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복지강국을 실현하고자 매진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에는 수십 개소에 불과하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이제는 1,100여 곳이 넘는 복지시설로 대폭 확장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물론 대사회적으로도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불교 복지계 지도자스님들과 재가 전문가들, 그리고 자비구현의 일념으로 부단하게 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 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불교계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협력 체계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전국의 자비나눔 문화 확산 운동을 이끌어 나아갈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각고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 왔듯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부단히 정진합시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아함경에 이르시기를 “나를 받들어 공양을 올리는 일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더욱 수승한 복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회복지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복전을 일구는 여러분의 앞날에도 자비하신 부처님 위신력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여러분 뒤에는 전국 불자들의 뜨거운 성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사회복지와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을 빛내주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정·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공덕이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1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